

보 도 설 명 자 료

('22. 1. 14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용인 반도체 산단 '25년 준공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
정부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

(1.14일자 조선일보 「3년째 새 공장 못 짓는 반도체 강국」에 대한 설명)

1. 보도내용

- SK하이닉스 용인공장 부지가 보상 요구 주민반대, 규제 등에 막혀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이후 3년째 착공을 못하고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현재 사업자가 산단 착공을 위해 산단 예정지내 주민과 보상 협의를 진행중인 상황으로

- 사업자는 '25년 준공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젝트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임

- 정부 차원에서도 용인 반도체 산단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임

- 그간 산업부 주관으로 경기도·용인시·관계부처가 참여하는 '반도체 투자점검회의'(산업정책실장 주재)를 통해 지속적으로 용인 반도체 산단 진행상황을 점검하고, 각종 인허가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추진해 왔으며,

* 용수관로 관련 국가하천점용허가('21.11), 전력인프라 관련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('22.1)

- 향후에도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용인 반도체 산단 적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

※ 문의: 반도체디스플레이과 박찬기 과장(044-203-4270)/김대영 사무관(4272)